

社說

결사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회향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입재 이후 정확하게 89일만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성곡·호산·무연·심우·진각·재현·도림·인산 스님은 89일의 시간 동안 자신을 가둬 내려놓고 오롯이 정진 또 정진했다.

이들 9명 스님들은 풍요의 시대에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었다. 하루 한 끼 공양하며 14시간 이상 정진하고 절대 천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옷 한 벌만 허용됐고, 삭발과 목욕은 금지됐다.

중간 중간 전해진 소식에서도 스님들의 날선 정진력을 알 수 있었다. 안거 막바지 한 스님이 의식을 잃는 긴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기를 보여준 아홉 스님들에게는 저절로 경외심이 들게 된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석 달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 자리에는 신도십 포교당 불사가 시작된다. 불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입재 이후 한달여 만에 5만 명 이상 사부대중이 다녀간 결사처는 흔하지 않다.

이제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하고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이다. 유튜브로 선원 소식을 전하고 오회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열린 결사로서의 면모도 대중의 호응도를 높였다.

이제 사부대중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고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결기를 보여준 아홉 스님들에게는 저절로 경외심이 들게 된다.

복지 전문가 양성 시급하다

25년 전, 불교계의 낮은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고 불교만의 복지영역을 구축하고자 창립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산하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5~6회 실시하던 일종의 보수교육을 대폭 확대해 불교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무기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정했다.

기실 불교계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시작으로 천태종복지재단, 진각복지재단 등 국내 주요종단이 앞장서 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게다가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14개 교구에서 교구별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전국적인 복지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웃종교에 비해 조금은 뒤늦은 복

지영역 투자였지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지역복지 현장에서는 “주지스님 말 한마디에 벌인 운영방향이 결정된다”거나 “사무국의 체계·인력·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전문적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기적 교육과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기에 올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전문교육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교육 분야도 법인·장애인·지역복지·노인·노무회계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또한 현장종사자와 중간관리자, 실무책임자 등을 위한 별도 교육도 준비돼 연간 2000여 명의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양성에 따라 불교 대사회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해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환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3길 36, 606호 (은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외사출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사 : 010-9373-3778
광 주 전 남 지 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 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 서울대 07641 (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미혹 바이러스 이기려면...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그룹사운드 ‘사랑과 평화’의 곡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혹시’의 ‘혹(或)’자는 그 자체로 ‘혹시’나 ‘만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혹(或)’자는 ‘창(戈)’자와 ‘입(口)’자, ‘한(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戈’자는 고대의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성벽을 표현한 ‘口’자와 경계를 표현한 ‘一’이 더해진 ‘혹(或)’은 ‘창을 들고 성(城)을 지키다’는 뜻이다. ‘혹(或)’자는 이렇게 성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생기면서 ‘혹시’나 ‘만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혹(或)’자는 결국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마음(心)’자가 더해진 ‘혹(惑)’자도 ‘혹(或)’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성을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수상하게 여긴다는 뜻이 더해진 ‘혹(惑)’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다’나 ‘미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 ‘혹(惑)’은 불교에서 번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수면(隨眠)’ 또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주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사약한 성격과 성향으로 잠재하며 조건이 맞을 때마다 표면화되기 때문에 마음을 뒤따르며 잠자고 있다는 뜻으로 ‘수면’이라 한다.

‘혹(惑)’은 ‘나’라는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착각의 무한 순환’의 첫 고리로 등장하기도 한다. 혹(惑)·업(業)·고(苦)라는 괴로움의 도돌이표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12지(支)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혹

(惑)은 무명(無明)과 애(愛)와 취(取)의 3지(支)에 해당한다. 십이연기의 순환은 이와 같은 혹(惑)이 바탕이 되어 노사(老死)의 고(苦)가 생긴다는 견해로, 결국 마음속에 있는 아집을 중심으로 하는 그릇된 생각이나 성격을 모두 혹(惑)이라 할 수 있다.

이 혹(惑)은 다시 견혹(見惑)과 수혹(修惑)으로 나뉜다. 견혹은 이론적이고 지적인 미혹으로 속칭 ‘안다 병’에 해당되고, 주로 후천적인 것으로서 바른 이론을 듣고 잘 이해하기만 하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수혹은 사혹(思惑)이라고도 하는데, 습관적이고 정적(情意的)인 미혹으로서 기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좀처럼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습관과 기질에 의한 끈질긴 미혹으로서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조금씩 제거되는 것이다.

혹(惑)에는 미혹한 상태에서 하는 ‘회의적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상가와라경(S46:55)에서 이 마음 상태를 “마치 물그릇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흙탕물이고 어둠 속에 놓여 있다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자신의 얼굴 모습을 관찰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알거나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혹시’라는 미혹과 의심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것에 감염되어, 세간의 시시비비(是非非非)에 혹(惑, 惑)해서 답답하고 안절부절못할 때는 ‘방학작’을 사용해야 한다. 작금(昨今)은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샅된 법을 근절하거나, 편안히 가라앉히거나, 또는 바로 벗어나거나 하는 ‘놓음’의 지혜를 통해 ‘혹시’라는 의심의 번뇌에 물든 병나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혹시·만일 의미하는 한자 ‘或’  
‘창 들고 지키다’는 어원 가져  
心 추가된 ‘惑’도 의미 비슷해

惑, 미혹함 따른 ‘회의적 의심’  
감언이설·샅된 언동에 휘둘러

신종코로나보다 위험한 ‘미혹’  
‘방학작’ 통해 내려놓고 살펴서  
의심이라는 번뇌에서 벗어나야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아와 종자기를 생각하게 된다.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종자기처럼 환자의 숨소리를 듣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음의 벗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호스피스 병동서 임종기도를 요청할 경우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갈등 없이 임종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킨 후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얼마 전 뇌졸중으로 3년간 투병하다 갑자기 폐렴으로 임종에 다다른 환자가 있어 임종기도를 가게 되었다.

의사가 임종을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친지들과 가족들은 모두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는 병실에 들어가 이전처럼 참회 기도와 임종 전 수계의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딸에게 인사를 시킨 후 나 또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만히 환자의 눈을 마주했다. 환자는 호흡이 목에 걸려 힘들게 숨 쉬는 상태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나를 바라봤는데 환자의 그 눈빛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스쳤다.

환자를 바라보는 내 옆에서 그의 아내가 “3~4일째 이렇게 밤낮으로 눈을 뜨고는 감지를 알아요. 잠도 안자고 이렇게 눈 못감고 가실까 걱정입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나는 그렇게 무언가 석연치 않



그림·최주현

음을 느끼며 돌아왔고 절에 와서도 계속 환자의 눈빛이 나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가족들은 발병 후 환자를 살리기 위해 2~3년간 노력했다. 딸은 직장까지 그만 두고 아버지 완쾌에 온전히 몰입했다. 이렇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가 일념으로 노력했다. 갑자기 임종 기도와 가족들의 작별 인사 모습이 나 자신조차도 너무 낯설었다. 나는 순간 ‘거사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상태를 두고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생각했다.

나는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에게 지금 상황을 자세

‘知音’이라는 벗

히 설명드리는 것이 어렵까라는 의견을 주었다. 딸은 나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하며 “그렇지 않아도 15일 동안 아버지가 계속 아프시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 일만 병실로 옮기는 과정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라고 울먹였다.

다음날 새벽, 그 환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편안히 임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딸이 아버지 귀에 대고 그동안 중환자실을 오가며 위급했던 상황을 소상히 전했고, 의사의 조언으로 모든 일간척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급했던 마음, 의료진들이 기도 삼입을 권할 때 아버지가 원치 않을 것 같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임을 오롯이 전하자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면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얘기를 전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준 딸의 지혜가 백아의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울리는 것 같았다. 딸이야말로 아버지에게 진정한 ‘지음(知音)’이라는 벗이 아니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일산 기쁨봉사 주지〉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 동방불교대학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모집 공고

**I.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총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도사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독도수계산임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학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법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은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회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대학교종이 설립한 중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II.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독도수계산임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학할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일반 재가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III. 모집인원 및 편제**

1. 모집학과 : 불교학과, 법패학과(2년제 정규편)
2. 모집인원 : 각과별 00명(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 ●전형료 : 5만원  
●입학금 : 20만원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 특전 : 본 종단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IV.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10일 ~ 2020년 2월 25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20년 2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20년 2월 27일(목)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www.dongbang.org)

**V. 접수서류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입학문의 한국불교대학교종 중앙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 02\_745\_2030, 010-3089-9983 www.dongbang.org  
 FAX : 02\_733\_0728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112)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 2020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인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수련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 래-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개강일 : 2020년 2월 27일 (음력 2월 04일 목요일) 오후3시  
 ※수강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2회)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과 목 :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제의식, 관음시식등, 사물다루는법, (실전위주)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개인지도)  
 ※수강료 : 월10만원 (수시모집가능)  
 ※강 사 : 수암, 덕우 (외전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 (055) 343-2267~8700 수암 : 010-5488-7060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